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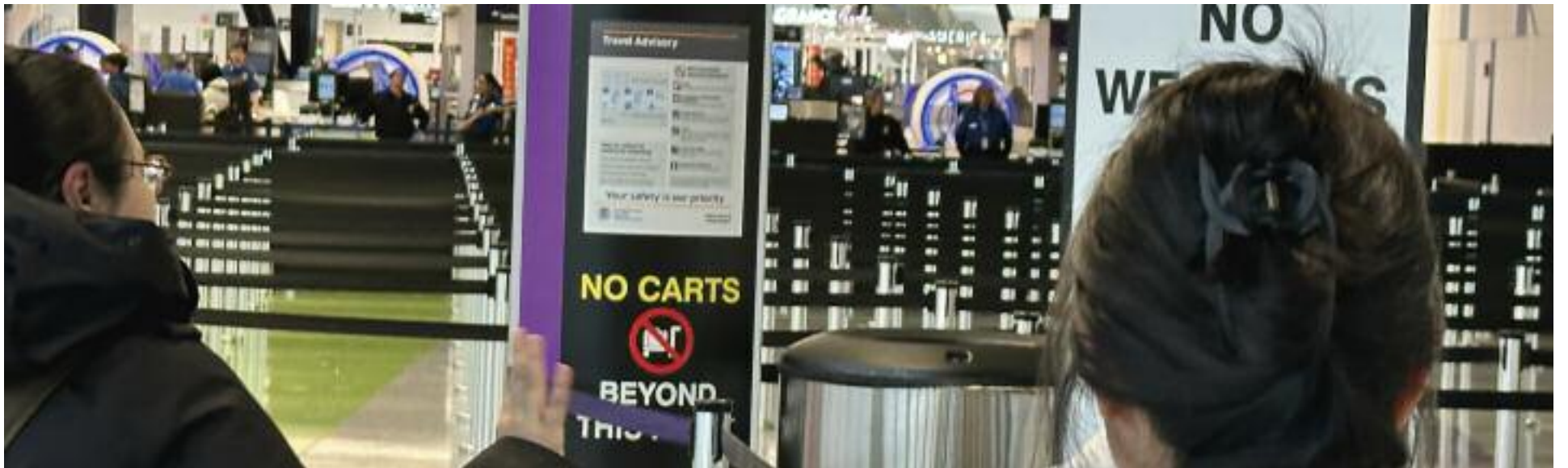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올해는 공항이 입국 심사장이 아닌 이민단속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한 이민 변호사의 말이다. 그러나 범죄경력이 없는 일반 여행객들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늘 충실한 준비는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올 여름 해외 여행? 까다로운 입국심사, 출국 전부터 대비해야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도 매년 입국가능성 평가
음주 운전 등 범죄기록 소지 경우, 아예 여행을 삼가야
영주권자 및 기타비자, 질문거부 및 비밀번호 거부 입국거부 사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입국심사는 늘 까다로웠지만 트럼프 정부 이후 그 강도는 훨씬 강화됐다. 올해 들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진 이민자들도 추방 등의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이민 전문가들은 영주권자 및 비시민권자들에게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5월 2일 '공항과 국경에서의 권리' 라는 주제로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리처드 허먼 변호사는 "미국은 헌법을 편의에 따라 해석해 온 전력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는 일본계, 독일계, 이탈리아계 미국인을 수용소에 가두는 등 미국 시민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왔다." 라며 미국 정권에 따라 돌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에 다른 점은 얼굴 인식 기술이든

<전체 기사 읽기>
인공지능이든, 활용 가능한 기술이 많아졌다는 것"이라며 미 세관국경보호국(이하 CBP)의 입국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정교해졌음을 지적했다. 일례로 로드 아일랜드 브라운대학의 사라샤알라위는 올해 초 레바논 방문시 하마스 지도자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실이 스마트폰 사진에서 발견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전문직 비자(H1-B) 소지자였던 **>>7면으로 계속**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내 집 마련·투자·재융자,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저금리 융자·재융자,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믿을 수 있는 모기지 해결사!
모기지 제일 잘 하는 마이크!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보스톤 숨은 빵의 명가 맛집을 소개합니다

보스톤 지역 주민들이 사랑하는 명가, 빵 맛집 리스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보스톤에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유명 베이커리도 많지만 현지인들만 아는 숨은 빵집들을 찾아 다니는 것은 또 다른 매력의 재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유명 베이커리들이 보스톤 곳곳에 분점을 오픈하면서 더 이상 20-30분씩 운전을 해 가거나 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결국 눈앞에서 품절이 되어 다른 날을 기약하며 발걸음

<전체 기사 읽기>
을 돌리는 일이 줄어들었다. 덕분에 보스톤 도심 안에서도 유명한 빵들을 보다 쉽게 맛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틈새에서 수십년간 한자리에서 묵묵히 전통을 지켜온 베이커리, 여전히 원조의 맛으로 사랑받는 본점 베이커리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왔 **>>10면으로 계속**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북미 한인 아마추어 여자축구대회, 보스턴에서 열린다

KWFL 주최 '퀸즈컵' 5월 31일 리비아에서 개최... 보스턴 FC 레드브릭스 주관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북미 한인 여성 축구팀들이 보스턴에 모인다. 한인 여자 축구 연맹(Korean Women's Football League, KWFL)이 주최하고 보스턴 지역팀인 FC 레드브릭스(Boston FC Redbricks)가 주관하는 제 2회 '퀸즈컵(Queen's Cup)' 대회가 오는 5월 31일(토요일), 매사추세츠리비아(Revere)에 위치한 해리델라루소스타디움(Harry Della Russo Stadium)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보스턴의 FC 레드브릭스를 비롯해 뉴욕의 불살라 FC(NY Bulsalla FC), 다디저스 FC(Dadizus FC), 뉴저지의 스트라이커스 FC(NJ Strikers FC) 등 총 4개 팀이 출전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를 펼친다. 각 팀은 북미 주요 도시에서 활동 중인 한인 여성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펼치는 축구대결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한인 여성들의 교류와 연

〈전체 기사 읽기〉

대를 상징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는 KWFL 주최 하에 보스턴 FC 레드브릭스가 직접 후원하고 개최한다. '여성이 만드는, 여성을 위한 축구 문화'를 실현하려는 KWFL의 의지에 따라 FC 레드브릭스는 한인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이끌어가고 있다.

KWFL은 보스턴의 FC 레드브릭스, 뉴욕의 불살라 FC와 다디저스 FC, 뉴저지의 NJ 스트라이커스 FC까지 총 4개 팀이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 팀 간의 경기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고 있다. 2023년 뉴저지에서 열린 제 1회 K-RADIO 컵을 계기로 창립된 이 연맹은 짧은 시간 안에 안정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하며 북미 전역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보스턴 FC 레드브릭스는 그레이터 보스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



북미 한인 여자 축구 연맹(KWFL)이 주최하고 보스턴 레드브릭스가 주관하는 제 2회 퀸즈컵 축구대회가 보스턴 인근 리비아에서 개최된다. 많은 한인들의 관람과 격려가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심이 되어 창단한 팀으로 건강 한 삶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추구 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경기 훈련은 물론, 자발적인 연습을 통해 실력을 다져온 레드브릭스는 지난 4월 19일 뉴욕에서 열린 KWFL 회장에서 첫 공식 승리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레드브릭스는 이번 퀸즈컵뿐 아

니라 올 6월 달라스에서 열리는 전미체전 여자 축구 시범경기,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 3회 K-RADIO 컵 등 다양한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처럼 레드브릭스는 단순한 팀 활동을 넘어 북미 한인 여성 축구의 발전과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여성들이 스포츠를 통해 성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어나갈 방침이다

오는 5월 31일 열리는 퀸즈컵은 북미 한인 여성 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상징적인 무대다. 한인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이 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여성 리더십과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다.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보스톤실로암교회

Siloam Church of Boston

주일예배 : 오후 1시(한글) / 2시 15분(영어)
기도 모임 및 신앙 상담: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보스톤실로암교회 (Siloam Church of Boston)
6 Eddy Street, Waltham, MA 02453
Cell: 857-540-1904
담임 목사: 예성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협의회, 2025년도 글짓기·손글씨 대회 성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회장 남일, 이사장 오인식)는 지난 5월 3일 토요일 2025학년도 글짓기 및 손글씨 자랑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체 기사 읽기〉

이번 대회는 뉴튼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강당과 교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6개 한국학교에서 107명의 학생이 참가해 한글에 대한 열정과 창의력을 뽐냈다. 참가 학교는 내슈아 한미음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보스턴장로교회 한국학교,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 북부보스톤 한국학교, 애머스트 한국학교 등으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고무 참여했다.

이날 대회는 협의회 박현아 총무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으며, 남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글 한 줄, 손글씨 한 획마다 담긴 여러분의 정성과 창의력이 깊은 감동을 준다” 며, “열심히 준비해준 학생들과 헌신한 교사 및 학부모들께 감사드립니다” 고 전했다. 강상철 부회장은 오인식 이사장을 대신해 “이 대회가 학생들의 꿈과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격려사를 전

했다. 대회는 이정설 교육간사가 심사위원을 소개하고 컴퓨터 추첨을 통해 학년별로 두 개의 주제를 선정한 후 각반으로 이동해 시작됐다. 학생들은 주제 중 하나를 택해 글짓기는 1시간 동안, 손글씨는 30분간 동안 실력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학년 참가자들의 경우 주어진 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열정이 가득해 ‘감동의 느낌이 가득한 시간’ 이었다고 감독 교사는 전했다.

감독을 맡은 한 교사는 “연필심이 종이에 또각또각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다” 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집중력 있는 분위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 앞서 심사 및 감독 위원들은 사전 온라인 회의를 통해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준비했다. 올해 처음으로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에세이 경연대회’ 도 신설되었다. 이는 한국학교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후배들을 지도하며 느낀 점을 밝혀, 앞으로 더 많은 후배 고학년 학생들이 보조교사로서 역할을 이어갈 바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수상자는 각 학년별로 선정되며,



고학년 부문 전체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스톤 총영사상이, 저학년 부문 전체 대상 수상자에게는 협의회장상이 수여된다. 각 학년 대상자는 후원 단체장상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5월 24일 열리는 ‘2025 사생대회 및 민속경기 대회’ 1부 행사로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다음 행사로 5월 24일(토) 뉴턴 오크힐 파크에서 어린이 사생대회 및 민속경기 대회를 개최하며, 현재 구글폼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협의회 마지막 공식 행사는 오는 6월 15일 저녁에 줌(Zoom)

으로 열리는 2025년도 정기 이사회 및 총회다. 협의회 가입 문의 및 2세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naks.ne.us@gmail.com), 전화(508) 523-5389로 문의하면 된다. bostonkoran@hotmail.com

Pine Dental



Fitchburg, MA에서 여러분의 치아를 책임지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삶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394 water St. Fitchburg, MA 01420

Phone: 978.345.7400 Pinedentalpc@gmail.com

"정의와 평화를 향한 여정의 시작" 미국서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모식 거행

유네스코 등재 후 첫 공식 추모행사... 미 의회 결의안 추진도 병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제주4·3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고 정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향한 메시지를 확산하기 위한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모식이 지난 4월 19일 매사추세츠 브루클라인(Brookline) 소재 허네만 홀(Hunneman Hall)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재미제주4·3기념사업회 유족회(회장 양수연)가 주최했으며, 제주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함과 동시에, 미국 의회에 제주4·3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한 첫 공개 행보였다.

제주4·3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으로,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진압 작전 과정에서 약 3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4월 유네스코는 제주4·3 기록물 총 14,673건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등재된 자료에는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 명부, 형무소 열서, 희생자 및 유족 증언, 시민사회단체 기록, 정부 공식 조사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다.

양수연 회장은 이날 추모사에서 "제주4·3은 단지 한국의 지역사가 아니라 세계 인권사에서 기억되어야 할 정의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이제 침묵의 세대를 지나, 기록과 증언을 통해 이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모식은 유네스코 등재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적 추모이며, 미국 사회가

〈전체 기사 읽기〉

이 역사에 함께 책임감을 느끼길 바란다. 이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김창범 제주유족회장, 오광현 재일본유족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영상으로 연대 메시지를 전했다.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캐서린 양씨는 "제주4·3 결의안은 과거에 대한 책임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가기 위한 국제적 약속" 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안 초안은 미군정의 개입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포함하며, 관련 기록의 공개, 유족과 생존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연대 표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베드포드 고등학교 9학년 생이자 한인 2세인 조셉 최(최재윤) 군이 연단에 올라 "왜 나는 이 역사를 이제야 알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연설을 통해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제주4·3은 단지 한국의 비극이 아니라, 침묵과 기억,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배우는 인류의 이야기"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듣는 것' 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보스턴대학교 교수이자 시인인 다이애나 린치 교수는 제주4·3을 "인류의 상처와 회복에 대한 시적 언어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 사건" 이라며, "언어는 침묵을 찢고, 고통을 직면하게 하며, 치유의 공간을 만든다" 고 강조했다.



예술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벤자민 최(최희승) 씨가 야나체크의 「소나타 1.X.1905-예감」 을 연주하며 제주4·3의 비극과 억눌린 감정을 음악으로 전달했고, 어린이 가수 헤이즐 조가 '동백의 꿈' 을 열창하며 청중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마지막으로 양수연 회장이 추모 영상을 배경으로 직접 추모곡을 부르며 깊은 울림 속에 행사는 마무리됐다.

재미제주4·3기념사업회는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월든 코리아(Walden Korea)' 를 통해 인권교육 및 예술활동을 확산하고 있으며, 시민참여예술단체 '동백의 향기' 와도 연대

하며 지역사회 교류와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추모식의 전체 영상은 5월 넷째 주부터 www.43jeju.com 및 www.waldenkorea.org 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4·3기념사업회는 유족이 아니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진실 규명과 역사 기억을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다. 가입은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가입비는 없다.

문의: 43jeju.com, 이메일 43jejuusa@gmail.com

JUNG KWAN JANG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정

정관장 紅蔘 6년
KOREAN RED GINSENG

-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 당뇨 합병증 예방
-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 기억회복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매사추세츠, 미국 내 최고 주 순위 9위로 상승

US뉴스, 총 71개 항목과 수천 개의 데이터 분석 순위 상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주가 올해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 이하 US뉴스)가 발표하는 주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매사추세츠는 사우스다코타에 이어 9위, 워싱턴주보다 한 단계 위에 올랐다. 지난해 10위였던 것 대비 상승한 것이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뉴햄프셔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위를 차지했고, 버몬트는 7위에 올랐다. 유타주는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자리를 지켰다. 이 외에 코네티컷은 15위, 로드아일랜드는 24위, 메

〈전체 기사 읽기〉

인은 27위에 이름을 올렸다. US뉴스는 이번 2025년 순위를 발표하며, 총 71개 항목과 수천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주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순위는 2017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다.

매사추세츠는 특히 ▲보건의료 부문 2위, ▲자연환경 3위, ▲교육 5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범죄 및 교정 시스템 항목에서도 5위를 기록했고, ▲주 경제 순위에서도 11위에 올랐다.

하지만 ▲재정 안정성(36위), ▲인프라(39위), ▲기회 제공 부문(41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며 아쉬운 성적을 남겼다.

hsb@bostonkorea.com

사진뉴스

박찬모 로건커리토 대표, 올해의 예비역 소유 비즈니스 상



박찬모 로건커리토 대표가 5월 5일 Tip O' Neill Federal Building에서 열린 SBA올해의 스몰비즈니스 상 시상식에서 한인 최초로 올해의 예비역 소유 비즈니스 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약 250명의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등이 참여했다. 박찬모 대표는 "참석자 중 저희 가족만 한국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매사추세츠에서 처음 수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 책임감도 느껴지고 한편으로 한국인의 위상도 높일 수 있어서 기쁨 뽐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마틴 루터 킹 60주년 기념 보스톤 자유의행진



4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마틴 루터 킹 3세, 마셜 우 보스톤 시장, 김 드리스콜 매사추세츠 부지사, 리즈 미란다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어이어나 프레슬리 연방 하원의원 등 보스톤 지역 사회 활동가들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스톤 커먼에서 1965년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 보스톤 자유의 행진 대회가 개최되었다. 6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교육개선, 주택문제 해결, 차별금지, 빈곤퇴치"를 주제로 변화와 개선을 촉구하며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의 정신을 기념하였다. (제공=한미 정치력 신장연대)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국외 여행 시 스마트폰, 이렇게 관리하라

뉴욕타임스가 제안한 데이터 보안 수칙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여행을 떠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짐 중 하나는 스마트폰이다. 항공권 확인부터 지도 검색, 현지 통신까지 대부분의 기능이 휴대폰 하나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경을 넘을 때, 이 스마트폰이 본인의 민감한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의 테크 칼럼니스트 브라이언 첨는 최근 “해외여행을 앞두고 내 아이폰을 집에 두기로 했다” 며, 소위 ‘버너 폰 (burner phone, 일회성 휴대폰)’ 을 준비해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디지털 디톡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경에서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24년 한해 동안 약 43,000건의 전자 기기 검색을 진행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검색은 극히 일부 여행자에게만 이뤄지지만,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 정보로 인해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첨는 “나처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자가 아니더라도, 여행자라면 휴대폰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가 소개한 위험도별 데이터 보호 전략이다.

위험도 낮은 경우: 생체인식 끄고, 민감한 앱 삭제하기

우선 휴대폰 잠금 해제 방식을 지문이나 얼굴 인식 대신 비밀번호 기반으로 변경하자. 이는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비밀번호 제공은 거부할 수 있지만, 얼굴이나 지문은 물리적으로 쉽게 강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SNS나 메신저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앱은 삭제해두는 것이 좋다. 단순한 여행 사진과 텍스트 메시지만 담긴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특정 정치 활동에 참여한 기록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위험도 중간: 백업하고 초기화하기
정보 유출 가능성이 더 걱정된다면, 데이터를 백업한 뒤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이 좋다. 아이폰의 경우 iCloud, 안드로이드는 Google One 을 활용하면 된다.

국경 통과 후에는 백업된 계정으

〈전체 기사 읽기〉

로 복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를 메모해두어야 한다.

위험도 높은 경우: 버너폰 사용

국경 검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개인 휴대폰을 아예 가져가지 않고 버너폰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브라이언 첨는 저렴한 안드로이드폰에 여행 필수 앱만 설치하고, 여행 전용 이메일 계정만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현지에서는 eSIM 앱(Nomad, Airalo, GigSky 등)을 통해 현지 통신망에 연결하고, 여행이 끝나면 사진만 복사한 뒤 해당 기기를 보관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시대의 여행은 편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보안 위협도 동반한다. 뉴욕타임스는 “여행지에서 자유롭게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간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고 조언한다. 여행 준비물 중 가장 민감한 짐은 바로 손에 쥘 스마트폰일 수 있다는 것이다.

hsb@bostonkorea.com



도미니카 저가 항공 아라젯, 11월부터 보스톤-산토도밍고 직항 노선 신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국적의 저가 항공사 아라젯(Arajet)이 오는 11월부터 보스톤 로건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산토도밍고 직항 노선을 신설한다. 이번 노선은 아라젯이 보스톤에서 처음으로 운항하는 노선이자, 도미니카 수도 산토도밍고의 라스 아메리카스 국제공항(Las Américas Santo Domingo Airport)까지 주 4회 운항할 예정이다.

아라젯은 경쟁사인 젯블루(JetBlue)와 같은 직항 노선을 제공하지만 보다 저렴한 운임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가격 경쟁력 우위로 고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라젯은 2022년 운항을 시작한 이후 뉴욕, 마이애미, 산후안 등 미국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삼아 북미-중남미 간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아라젯 빅터 파체코(Victor

〈전체 기사 읽기〉

Pacheco) CEO는 성명을 통해 “보스톤 지역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도미니카 커뮤니티 중 하나가 거주하는 곳이자 교육, 비즈니스, 관광의 중요한 허브” 라며 “이번 보스톤 노선 추가를 통해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고품질 저가 항공 서비스 수요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킬 것” 이라고 밝혔다.

아라젯은 산토도밍고를 중심으로 아루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항공편을 운항 중이며, 향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한 신규 노선도 계획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미 대륙에 인접한 카리브 해의 히스파니올라섬에 있는 나라로 주요 생산물로는 커피, 사탕수수 등이 있다. 공용어는 스페인어이고 수도는 산토도밍고이다.

hsb@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여름 해외 여행을 계획? 입국심사서 권리를 꼭 알아두세요

▶▶1면에 이어서

알라위는 입국 2일전 사진을 지웠으나 입국심사에서 걸렸다.

CBP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시절이었던 2024년 한 해동안 4만 7천여건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수색이 이뤄졌다. 이중 3만5천여건은 비 시민권자였지만 시민권자의 스마트폰 수색도 1만여건이 넘었다. 전체 여행객의 0.1% 수준이었으므로 크게 화제로 떠오르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는 더욱 스마트폰 수색이 강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의 테크놀로지 이용 검색 강화는 특히 학생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3월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3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를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SEVIS)를 통해 조회했고, 그 결과 약 6,400건의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대부분은 단순 교통 위반이나 경미한 경찰 접촉 기록이었으며, 혐의가 각각됐거나 아예 기소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해당 학생들의 학교 기록은 자동으로 종료됐고, 약 3,000건의 비자가 취소됐다.

허먼 변호사는 "이제 공항의 입국심사는 이민 단속 장소로 변했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시민권 소지자인 변호사마저 공항에서 억류되고 스마트폰 검색을 당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매사추세츠멧두엔(Methuen, MA)에 거주하는 변호사 바시르 아탈라(시민권자)와 그의 아내 제시카 파크리(영주권자)가 캐나다 국경에서 휴대폰 등을 압수당하고 6시간 가까이 억류됐다가 풀려난 것도 이 사례 중의 하나다.

허먼 변호사는 "단지 이민자들뿐

만 아니라 이제 모두가 해외 방문 후 입국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국시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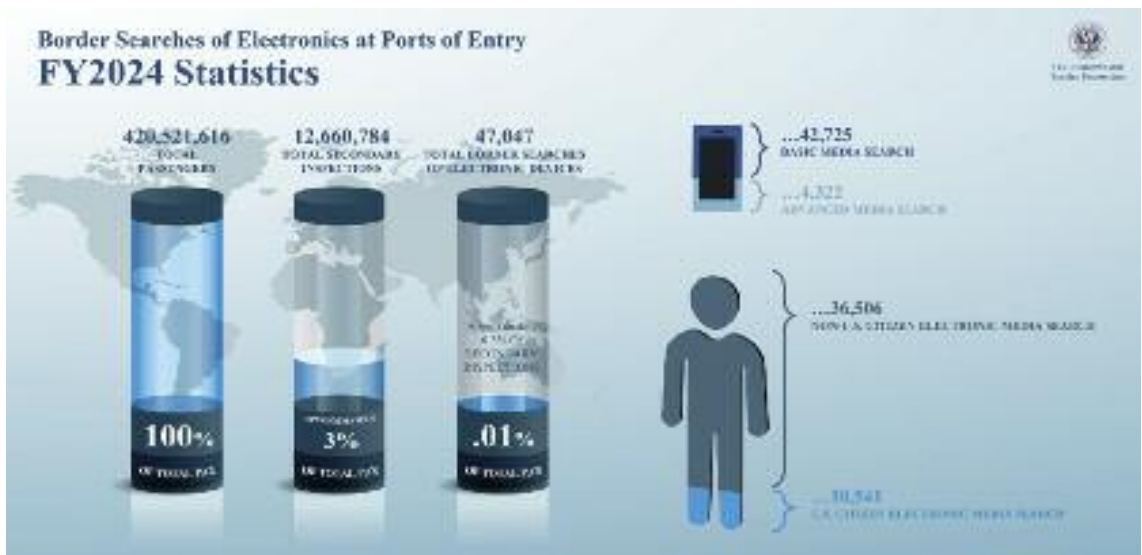
이미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가족의 일로 부득이하게 해외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국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과 이에 대한 대응 및 자신의 권리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시민은 언제든지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공항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편리한 여행은 법적 권리가 아닌 특권에 불과하다.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 샌프란시스코지부(CAIR-SFBA)의 자흐라 빌루 대표는 "입국 시,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은 시민권자를 구금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짐은 물론 전자기기까지 검사할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I'm going to choose to remain silent') 혹은 '그 질문이 제 재입국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Why is that question relevant to my reentry?)" 같은 말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빌루 대표는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통해 휴대폰을 열도록 강요받을 수 있지만, 비밀번호는 절대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기가 압수되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비밀번호 없이 기기 접근을 원할 경우에는 판사나 상급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 따라서 여행 전 스마트폰의 생체 인식 정보를 모두 비활성화해두는 대비가 필요하다.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여타 비자 소지자에게는 상황이 더 엄격하다. 영주권자 등은 재입국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국경에서 입국허가 가능성(admissibility) 평가를 받아야 한다. 빌루 대표는 "질문 거부나 비밀번호 제공 거부는 입국 불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CBP 직원이 일부 영주권자에게 I-407 서류, 즉 영주권 자신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민로펌 '바운드리스(Boundless)'의 CEO 자오 왕 변호사 "서명을 강요받은 이들 중 상당수는 서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지 않으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 없이 서류에 서명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

했다.

법적으로 영주권자는 입국 초기에 변호사 선임권은 없지만, 장기 구금이 될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민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법적 권리도 있다.

따라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영주권자들은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미리 신청해야 하며, 세금 신고서, 주거 계약서, 급여 명세서, 각종 고지서 등 미국에서의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 비자의 경우

학생 비자(F-1)비자의 경우, 학생 신분 비활성화되는 순간 그날로 신분이 사라진다. 이 비자의 경우 재입국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국경에서 입국 허가 가능성(admissibility) 평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입국 심사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

보스톤의 이민전문 성기주 변호사는 "입국시 질문에 대비해 출국 전 각 학교의 국제학생담당자에게 반드시

시 이메일을 통해 출국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답변을 받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과거 경찰과 접촉했거나 기소 유예 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기록을 소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주권자, 취업비자,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과거 음주운전 또는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해외여행을 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이민전문가들을 밝혔다.

특히 시민권자들도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는 특이한 상황이므로 특히 출국 전에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둘 것을 권장했다.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문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하며, 이상하면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반적인 조언이다.

한편, 최근 CBP는 해외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도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짐 소지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BP는 매일 3천여건의 물건을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세계속 한국인의 소중한 마음. 투표로 보여주세요

Represent the True Hearts of Koreans
around the World through Your Vote



선거정보 등 확인
ok.nec.go.kr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Election for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Period of reporting an overseas absentee
2025. 4. 4. ~ 2025. 4. 24.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Period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alte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n overseas voter
~ 2025. 4. 24.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5. 5. 20. ~ 2025. 5. 25.

매일 08:00~17:00 08:00 - 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period may differ by diplomatic mission.

투표장소 Voting Place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 The place designated by the Overseas Election Commission

투표대상 Eligible Voters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 Korean nationals enrolled in official lists of overseas absentee voters or overseas eligible voters

준비물 Required Documents

- 신분증명서(단,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 함께 지참)
-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Overseas eligible voters should also prepare original copies of the documents required to identify the nationality.)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명서는 필요없음
- Additional identification certificates are not necessary if a photo is attached to the documents that identify the nationality.
- 국적확인서류는 해당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Documents to identify the nationality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diplomatic mission.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go.kr), 외교부국제포털 홈페이지(iaa.go.kr)에서 24시간 확인 가능
※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go.kr), and Overseas Korean Agency(oka.go.kr).

보스톤 숨은 빵의 명가 맛집을 소개합니다

▶▶1면에 이어서

던 베이커리와 최근 새롭게 떠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는 베이커리들을 소개한다.

클리어 플라워 베이커리(Clear Flour Bakery)

소수의 매니아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빵 맛집이다. 아침시간에 웨이팅은 기본이며 오후 12시 이후에는 원하는 빵이 이미 품절됐을 수도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빵과 페이스트리를 선보이며, 모든 재료는 현지에서 공급받는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다. 반죽 계량제, 방부제, 향상제 같은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손으로 정성껏 반죽해 발효시킨 뒤 돌로 된 화덕에서 구워내 아침마다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맛볼 수 있다.

전통과 품질을 고집하는 베이커리로 다양한 종류의 빵과 페이스트리를 맛볼 수 있지만, 단백질과 전문적인 기술로 구운 바게트나 사워도흐 같은 정통 빵들이 더 인기가 많다.

추천메뉴

양 시엔 바게트 (Ancienne Baguette): 프랑스 전통 바게트의 맛을 유지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특징이다.

사워도흐 (Sourdough 2.0): 더욱 깊은 발효 풍미를 자랑하는 사워도우 빵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2시 이후에만 판매된다.

모닝 번 (Morning Bun): 시나몬과 설탕이 어우러진 달콤한 아침 번으로, 아침 시간에 인기가 많다.

카눌레 (Canelés):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전통 디저트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이다.

방문 팁

일찍 방문하기: 인기 있는 제품은

빠르게 품절되므로, 특히 주말에는 개점 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것이 좋다.

대기 시간: 매장 내에는 한번에 3명만 입장할 수 있으므로, 평균 20분 정도 대기할 수 있다.

주소: 178 Thomdike Street, Brookline, MA 02446

웹사이트: <https://www.clearflourbread.com/>

레브르 빵집 (Reveur Bakery)

수제 디저트 베이커리로, 보스톤에서 한국식 인절미 케이크를 파는 첫 번째 빵집이다. 한국의 디저트를 그리워하는 보스톤 한인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시그니처인 수제 인절미 케이크는 고소한 콩가루와 수제 팥이 어우러진 가장 큰 인기 상품이다. 이외에는 슬레이유 케이크, 말차 무스케이크와 쿠키가 있으며 시그니처 케익이외의 디저트는 시즌별로 메뉴가 바뀐다. 모든 제품은 사전 주문 후 지정된 날짜에 픽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워터타운에서만 픽업이 가능하다.

추천메뉴

수제 인절미 케이크 (Injeolmi Cake): 레브르의 시그니처 메뉴로, 고소한 콩가루와 쫄쫄한 떡 식감이 어우러진 한국식 디저트 케이크

방문 및 주문 팁

주문일정: 매주 한정수량으로 보통 월요일에 오픈되며 픽업은 해당 주 금요일에 가능하지만 매주 조금씩 다르다. 정확한 일정은 인스타그램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자.

픽업 장소: 워터타운(Watertown, MA) 내 지정된 장소에서 픽업이 진행된다. 자세한 위치는 주문 시 안내된다.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reveurbakery_?igsh=M

WpscGVkMzFqc3lyZw==

웹사이트: https://www.reveurbakery.com/?fbclid=PAZXh0bgNhZW0CMTEAAacoEpD4bHVKFFH0QalRuxyAa6RojnKrzXuI9kotQAGAzePA___cLV0MFybv06w_aem_LYn1UMgfp88YeHbkVW-BXfQ

플레이크 베이커리(Flake Bakery)

콜리지 코너에 새롭게 등장한 에그타르트 전문점이다. 포르투갈의 전통의 에그커스타드 타르트로 바삭한 페이스트리와 부드러운 커스타드 필링의 조화로 포르투갈의 맛을 그대로 전한다.

보스톤에서도 보기 드문 에그타르트 전문점으로 이미 눈길을 끌고 있으며, 맛까지 더해 인기가 빠르게 상승 중이다. 매 시간대마다 갓 구워낸 타르트를 바로 맛볼 수 있어 신선함은 물론, 따뜻하고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다.

현재는 에그타르트 단일 메뉴만 판매되고 있으며, 다양한 커피와 차 음료와 함께 간단한 디저트 타임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추천메뉴

파스텔 드나타 (Pastéis de Nata)-에그타르트

단품: \$3.50

4개 팩: \$13.00

6개 팩: \$18.00

12개 팩: \$30.00

방문 팁

조기 방문 추천: 파스텔 드나타는 하루에 여러 번 구워지지만, 인기가 높아 빠르게 품절될 수 있으므로, 개점 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것이 좋다.

테이크아웃 중심: 매장은 아담하고 좌석이 제한적이므로, 테이크아웃을 고려하시는 것이 편리하다.



월요일은 휴무

주소: 129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https://flakebakery.com/>

라콘 본점 (Lakon Paris Patisserie)

급성 인기를 얻으며 브루클라인, 브라이언, 씨포트 점을 열었지만, 뉴턴 하이랜드에 위치한 본점은 라콘 베이커리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여전히 많은 로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은 라콘 베이커리 특유의 정성과 전통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다고 평가되는 매장으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주말 아침이면, 매주 달라지는 다양한 종류의 스페셜 크루아상을 맛보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줄이 길게 늘어지며, 오후가 되면 인기 메뉴는 대부분 품절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만큼 본점에서의 경험은 다른 지점과는 또 다른 깊은 매력을 전한다.

추천메뉴

레몬 머랭 크루아상: 상큼한 레몬 커드와 부드러운 머랭이 어우러진 시그니처 인기 메뉴

피스타치오 크루아상: 진한 너트향과 크림이한 필링의 조화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크루아상: 디저트처럼 풍성한 맛과 비주얼로 SNS 인기

방문 팁

주말 오전 9시 이전 방문 추천: 인기 메뉴 소진 전 방문하면 다양한 종류의 스페셜 크루아상을 고를 수 있다.

온라인 메뉴 확인: 라콘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웹사이트에서 그 주의 스페셜 메뉴를 미리 확인하고 가면 좋다.

주차: 뉴턴 하이랜드는 주차공간이 비교적 여유 있는 편이지만, 늦은 오전부터는 혼잡해지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이나 이른 시간 방문을 추천한다.

주소: 1169 Walnut St, Newton Highlands, MA 02461

웹사이트: <https://lakonparis.com/>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lakonparis.patisserie/?hl=en>

bostonkorean@hotmail.com

성인뚜인디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검 철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3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and 2024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년 보스턴 매거진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로 선정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미국 경기 안 좋다는데 경제 지표는 양호?... 지표 반영까지 시간

(서울=연합뉴스) 주중국 기자=미국에 경기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아직 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경기 변화가 거시지표로 나타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정책기관과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지표로 나타나기 전에 미리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온갖 정보들을 살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표가 이를 반영하는 속도가 느려 전문가들이 여러 민간 자료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경기침체 징후는 많이 볼 수 있다.

햄버거 체인점 맥도날드 매출이 줄고, 서부 지역 관문인 로스앤젤레스(LA) 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 수는 감소했다. 생활용품업체 프록터앤드갬블(P&G)은 관세 영향으로 제품값을 올렸으며,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장난감업체 마텔은 제조공장을 중국 밖으로 옮기고 있다.

하지만 주요 경제 지표는 다르다. 소비자 지출은 감소하지 않았고 실업률도 증가하지 않았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나 소모품 구매도 여전히 강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불확실성 영향이 거시지표에 나타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하지만, 그전까지는 관세 세수와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맥도날드와 치폴레의 매출은 줄었지만 피자헛, 타코벨 등의 매출은 느는 등 소비 추세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예약률, 트럭과 철도 화물 운송량 등 평상시라면 잘 보지 않을 자잘한 자료들까지 들여다보는 실정이다.

바클레이즈의 마크 지아노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의지할만한 지표가 별로 없다는 점"이라면서 "자잘한 정보, 비전통적인 지표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 때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앞으로 닥칠 피해를 예상하기 위해 식당 예약률이나 브로드웨이 공연 관람객 수, 공항 검색대 통과 승객수 등도 참고했다.

회계법인 RSM의 조 브루수엘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시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면

"다시는 교통량과 같은 지표를 따지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은 이런 지표에 대해 이견도 많다.

관세 전쟁이 물가 상승이나 상품 부족으로 나타날지, 소비자 지출 감소와 실업 증가로 이어질지, 어느 분야에서 실업이 먼저 나타날지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

씨티그룹의 앤드루 훌렌호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실제 소비자 행동이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행동이 변하고도 한달여가 지나야 지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잘한 지표를 통해 상황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관세 충격은 거시지표 한군데에는 나타났지. 소비자와 기업이 새 관세 발효 전에 '사재기'에 나서면서 3월에 미국 무역 적자가 급증, 1천400억 달러를 기록했다.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관세로 인해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여 궁극적으로 실업 증가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소비자, 특히 부유층은 재정 상황이 튼튼해 소비를 계속할 것이며 기업은 높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정책에서 후퇴하거나 다수 경제학자가

예상하는 것보다 관세로 인한 타격이 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작은 정보에서 경제의 방향을 읽으려 하지만 이것도 일관되게 나오지는 않는다.

항공사 경영진은 업계에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호텔 객실 점유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맥도날드나 치폴레 매출은 지난 분기 줄었지만 피자헛, KFC, 타코벨 등의 매출은 늘었다.

훌렌호스트 이코노미스트는 "작은 정보들이 맥락상 매우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연준의 금리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구체적인 거시지표"라고 말했다.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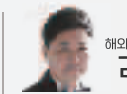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의의료시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대만달러 환율 급락은 다른 아시아국 환율 급락의 전조"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최근 대만달러/미국 달러 환율이 급락한 현상이 앞으로 몇 분기 안에 다른 아시아 통화 환율에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라이즌 캐피털이 소유한 외환 중심의 소규모 헤지펀드 유라이즌 SLJ의 스티븐 쟈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투자자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같이 예상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전했다.

2009년까지 모건스탠리의 통화전략팀을 이끈 쟈 CEO는 대표적인 '달러 고평가론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달러의 비선형적인 매도세에 (미 달러) 투자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위험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믿는다"며 "지난주 대만달러/미 달러 환율 급락은 그 한 사례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만달러/미 달러 환율은 지난 2월과 5월 2거래일간 9% 급등한 후 6일 3% 반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다.

미 달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온 쟈 CEO는 특히 중국의 '새도 리저브(비공식 외환보유액)'가 달러 약세 시 대거 빠져나갈 위험을 예



기해왔으며 이번 대만달러 환율 급락이 그 위험의 시작이라고 봤다.

그는 "우리는 오랫동안 달러의 '눈사태'(폭락) 위험을 경고해왔다"며 "중국에서만 약 2조5천억달러(약 3천 490조원) 규모의 '눈'이 쌓여 있고 이외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등에서 연간 5천억달러가 추가로 늘고 있다. 이들 국가가 거둔 막대한 무역흑자의 일부만이 본국으로 송금됐을 뿐 수출업체들이 상당량을 미 달러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더 많은 방아쇠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주 대만달러 환율 급락은 이러한 달러 눈사태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아시아 통화 환율에서 또 다른 급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가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시아 통화 환율의 조정은 미국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쟈 CEO는 경제 규모 대비 누적 무역흑자를 기준으로 볼 때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달러 눈사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목했다.

그는 "만약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내리며, 중국이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 미 달러 보유 자산의 과잉은 여전히 너무 크다"며 "지난 몇 년간 수출 수입을 본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미 달러로 보유하게 만든 '밀어내는' 요인과 '끌어당기는' 요인이 앞으로는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jungwoo@yna.co.kr

백악관, '트럼프 지시 국부펀드'에 "계획수립...최종결정은 아직"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미국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설립 계획을 수립했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 CBS 방송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 및 경제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계속 약속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3일 재무부와 상무부에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이달 초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CBS는 "국부펀드 설립 계획이 제출됐지만, 한 소식통은 백악관이 재무부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부펀드 운용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발표는 임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8월이나 9월 예고한 '지각을 뒤흔드는 발표'는 국부펀드 설립과는 무관하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이나 기타 방법으로 국부펀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미 국부펀드를 통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인수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min22@yna.co.kr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李, 사법리스크 벗어나 '친기업·경제회복' 강조...중도확장 박차

바로 경제행보 '올인'... '파기환송심 연기' 이틀날 일정 모두 '경제'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이 대선 뒤로 연기되며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풀려나자 8일 곧바로 경제행보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공판 기일을 15일로 잡았다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민주당 반발에 전날 '공정성 논란을 없애겠다'며 일정을 대선 뒤로 미뤘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일까지는 일단 사법리스크 문제에서 벗어난 만큼 경제와 민생 이슈의 고삐를 세계 잡아 쥐고 '준비된 대통령' 면모를 부각, 중도 확장파 '대세론' 굳히기에 나서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 후보는 법원의 공판 기일 연기 결정 이틀날인 이날 경제 관련한 일정으로 시간표를 가득 채웠다.

우선 첫 일정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했다.

이 후보는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들로부터 정책 제언을 들었다.

이 후보는 자리에서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면 적극 수용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과 소통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친기업', '경제 성장' 메시지를 발신해 공격적인 중도·보수 표심 확장에 나서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연초부터 '회복과 성장' 슬로건을 내걸고 실용주의 경제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3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강조했다,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 싱크탱크 수장 과도 면담해 "기업인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갖고 뒤은 경제, 민생 비전을 여과 없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파탄낸 경제를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으로 수습하고, 잘사니즘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중앙선대위 직능본부(박흥근·남인순 본부장)와 각종 전국 직능단체와의 정책 협약식에 자리한다.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

의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약 27개 직능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다.

이 후보는 이들 '풀뿌리' 경제·민생 분야 단체들의 정책 요구 사항을 듣고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후 경제 채널 유튜브버들과 유튜브 생방송에 나선다. 이 역시 경제 관련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에 다가서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구독자 110만명의 '전인구 경제 연구소', '와이즈트릿'(구독자 73만명), '이효석 아카데미'(구독자 39만명), '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구독자 25만명) 채널 운영자와 경제·주식시장 등에 대한 이슈를 놓고 토론할 계획이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이 후보의

경제 중심 행보에 보조를 맞춘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금융노조를 찾아 정책협약식을 하고 선대위 산하의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강준현·오기형 위원장)는 정책 협약식을 연다.

정책 행보도 강화한다.

이 후보 직속 기구인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조정식·이종석 위원장)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출범식 및 첫 대책 회의를 열고 국의 중심 실용 외교 및 한반도 평화 구상 정책 전략 수립에 나선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철학 없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집안싸움에만 몰두하는 상황"이라며 "이 후보는 경제와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국민에게 성장과 회복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APRIL 25th - MAY 1st,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DAISY PIZZA FOR SESAME MOCHI BREAD

Create a delightful spring-inspired Daisy Pizza at home using the Korean Sesame Mochi Bread mix. H 마트에서 만날 수 있는 깨찰빵 믹스로, 집에서 봄의 기분을 담은 데이지 피자를 만들어보세요.



Red Seedless Grape 씨없는 적포도 LB \$2.49	Bitter Melon 비터 멜론 LB \$2.79	Chinese Eggplant 중국 가지 LB \$0.99	Chinese Celery 중국 샐러리 LB \$0.99	SUNSET Grape/Medley Tomato 선셋 방울/메들리 토마토 1.5 LB/PKG \$2.99	Persian Cucumber 페르시아인 오이 1 LB/PKG \$0.99	Yellow/Orange Bell Pepper 노란/오렌지 피망 EA 3\$0.99 FOR
Orri Mandarin 柑橘 LB BOX \$2.49 \$19.99	DRISCOLL'S Strawberry 드리스콜 딸기 2 LB/PKG \$6.99	Zucchini Green Squash 그린 호박 LB \$0.99	MARATHON Honey Mango 마라톤 허니 망고 BOX \$12.99	Shanghai Tip 청경채 팁 LB \$1.79	Premium Fuji Apple 프리미엄 후지사과 LB \$1.29	Green Leaf Lettuce 청상추 BUN \$1.2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U.S.D.A. CHOICE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10.99	Fresh Beef Eye Round 생 흉두깨살 (장조림용) CHUNK/LB \$8.99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 돼지 갈비 (바베큐용) LB \$3.99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6.99
Fresh Chicken Tenderloin 생 닭안심 LB \$3.99	U.S.D.A. CHOICE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양념 LA 갈비 SLICED/LB \$16.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esh Hybrid Striped Bass 양식 농어 LB \$7.99	Fresh Carp 붕어 LB \$3.99
Frozen Tilapia 틸라피아 600-800'S/LB \$2.99	Head-on Shrimp 머리새우 20-30'S LB \$4.99
Frozen Octopus 문어 PRODUCT OF SPAIN LB \$5.99	Frozen Mackerel Pike 공치 90-110'S/LB \$2.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JONGGA Kimchi Ramen 종가집 김치라면 4.93 OZ X 6 BOWLS/BOX \$8.99	H MART SMART CARD ONLY HAO Korean Style Spicy Chewy Noodles 해오름 비빔쫄면 15.5 OZ \$3.99
H MART SMART CARD ONLY DR. CHUNG'S FOOD Vegemil Blackbean Almond & Walnut Soy milk (Pouch) 정식품 베지밀 검은콩 아몬드와 호두 두유 (파우치) 6.42 FL OZ X 15 EA/PKG \$9.99	H MART SMART CARD ONLY DR. CHUNG'S FOOD Vegemil Blackbean Soy milk Pouch 정식품 베지밀 검은콩 고칼슘 두유 (파우치) 6.42 FL OZ X 15 EA/PKG \$9.99

KOKUHO California Premium Rice 국보쌀 옐로우 15 LB \$12.99	KWANGCHEON Green Tea Seaweed 광천 청파래 녹차김 선물세트 0.71 OZ X 10 EA/BOX \$11.99	PULMUONE Soupy Topokki 풀무원 국물떡볶이 SPICY/14.9 OZ FOR 2\$9	FOODCELL Balloonflower 푸드셀 도라지 1 LB \$5.99	JINGA Sushi Pickled Radish 진가 스시 단무지 2.2 LB \$3.99
CHUNG JUNGWON Luncheon Meat 청정원 런천미트 12 OZ \$2.99	SAMPO Canned White/Yellow Peach 삼포 황도/백도 통조림 14.11 OZ \$1.99	TGF Quinoa & 10 Roasted Grains Power 태광 퀴노아 10곡 미숫가루 1.76 LB (40 STICKS/PKG) \$6.99	HAITAI Honey Butter Chip 해태 허니버터칩 4.23 OZ 2\$5	K TOWN Sweet Melon Cream Crackers K TOWN 메로나 11.29 OZ 2\$5
HAITAI Homerun Ball Snack 해태 홈런볼 CHOCOLATE 5.15 OZ FOR 2\$5	ORBIT Milk Classic Rice Snack 오르빗 밀크 클래식 쌀과자 8.47 OZ \$4.99	MOCHI TOWN Plush 모찌타운 모어모어 뽀송 인형 BUNNY/POODLE/RAGDOLL -\$24.99 \$15.99 EA	CIMELAX Door Fit Grain Container 씨밀렉스 도어핏 잡곡통 IVORY/LIGHT PINK/GRAY -\$7.99 \$5.99 2050 mL EA	SAENGONG Moisture Absorber Hanger Type 생활공작소 세습제 옷걸이형 대용량 -\$2.49 \$1.99 7.05 OZ EA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 김치!**
JONGGA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Made with 100% Korean ingredients, JONGGA Kimchi offers taste you can trust!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ek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김지현 978.494.2043 jim@bostonpremierrealty.com	 노미 617.447.0501 nohmi@bostonpremierrealty.com	 박주 617.780.7635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장희 978.866.3248 tjjang@bostonpremierrealty.com	 이인주 401.538.3397 tyyee@bostonpremierrealty.com
 박소 617.338.0787 so@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한수연 617.528.6973 hansoyeon@bostonpremierrealty.com	 민소 213.503.0347 minso@bostonpremierrealty.com	 박지 413.507.1400 parkji@bostonpremierrealty.com	 손정태 617.913.3348 sonjungtae@bostonpremierrealty.com
 최진진 617.877.0387 jin@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36.3412 soony@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59.1214 hanheesook@bostonpremierrealty.com	 장혜영 617.915.1162 hyyoung@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규 617.543.0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박인희 404.641.9192 wipark@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94.58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482 nancywang11@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531.0314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e 617.936.2713 vivianye@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7.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ong 248.449.0117 jio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rra 978.873.0076 msorr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8.26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wei@bostonpremierrealty.com	 정혜민 박 201.446.8995 min@bostonpremierrealty.com	 재미크 김 781.596.0409 dick@bostonpremierrealty.com	 이신현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Mini Belanger 413.257.1586 mini@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국힘 "이틀내 단일화" 김문수 "손떼라"...당-후보, 사상초유 충돌

金 "단일화 미명으로 정당한 후보 끌어내리려 해"...권성동 "정말 한심" 한덕수측 "11일 전 단일화" 국힘 지도부와 보조...金 지지단체, 지도부 고발할 듯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치연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8일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며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단일화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그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를 당의 몇몇 지도부가 끌어내리려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후보 단일화인가, 후보 교체인가"라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김 후보는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며 앞으로 일주일 동안 두 후보가 각자 선거 운동을 한 뒤 오는 14일 방송 토론, 15~16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당 지도부가 제시한 '단일화 로드맵'(8일 방송 토론, 9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을 거부한 것으로, 김 후보는 이날 예정된 토론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불법이기 때문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중앙선거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당 지도부와 한 후보는 김 후보의 이같은 입장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틀 안에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시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의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11일까지 단일화'에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잡아 놓은 전국위원회(11일)와 전당대회 절차를 밟아 '후보 교체'도 강행할 수 있다고 시사한 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후보에 대해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일방

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서회견하는 모습"이라며 "정말 한심한 모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국가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민생을 걱정하는 분께 큰 실례와 결례, 또는 정말 못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당 지도부와 보조를 맞췄다.

한 후보는 "(어제 담판에서) 김 후보는 아무런 대안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왜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것"이라고 김 후보를 겨냥했다.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이처럼 반목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사태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빚기는 했으나 지금까지 전면전 양상은 아니었고, 더구나 당 지도부와 무소속 후보가 호흡을 맞춰 당 대선 후보와 대치하는 형국은 더욱 생경한 모습이다.

전날 김 후보 지지 원의 당협위원장들이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 김 후보 지지 단체들은 당 지도부를 사기·배임·횡령·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양측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geein@yna.co.kr

이재명 44% 한덕수 34% 이준석 6%...이재명 43% 김문수 29% 이준석 7%3%[NBS]

(서울=연합뉴스) 박민서 홍준석 기자 = 차기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이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포인트(p) 올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각각 91%, 77%로 나

타났다.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23%를 기록했다.

한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0%p 올랐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차기 적합도는 12%였다. 한 후보와 김 후보의 적합도 차이는 오차범위 밖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53%, 김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의 차기 적합도는 5%로 집계됐다. 15%는 모

름·무응답 등으로 태도를 유보했다.

대선에서 이재명·한덕수·이준석 후보가 붙는 것을 상정한 '가상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4%였고, 한덕수 후보는 34%, 이준석 후보는 6%였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3자 대결 구도를 가정했을 때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3%, 김문수 후보 29%, 이준석 후보 7%의 순이었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호감도를 질문한 결과 이재명 후보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한덕수 후보 36%, 김문수 후보 28%, 이준석 후

보 17%의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4%로 오차범위 내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p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와 같았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4%로 집계됐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소극적 투표층은 11%, 비투표층은 4%였다.

한편, 대선 지지 후보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76%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대선 후보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리더십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이 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23%, '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

성' 15%, '정권 교체 또는 유지' 10%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인식은 52%,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39%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45%,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75%와 54%였고, 보수층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75%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2.1%였다.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MART**
OUR LOWEST PRICE!

APR. 24TH - MAY 1ST, 2025



Tokyo Banana

LIMIT 2

도쿄 바나나

\$10.99

1.06 LB (8 EA/PKG)



Japan's most popular
GIFT is here!



Wok Pan

LIMIT 2

수라상 마블 궁중팬

30 CM/EA

~~\$31.99~~

\$17.99

32 CM/EA

~~\$33.99~~

\$19.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약한영웅' 박지훈 "악에 받쳐 피가 차가워진 느낌은 처음"

(서울=연합뉴스) 오명연 기자 = 조용한 목소리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 배우 박지훈이 인터뷰에 앞서 볼펜을 집어 들더니 '딸깍' 소리를 냈다.

순간 드라마에서 그가 볼펜을 쥐고 휘두르던 전매특허 액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대신 박지훈은 아주 느린 속도로 테이블 위에 놓인 A4 용지에 조그마한 글씨로 '약한영웅'이라고 적었다.

넷플릭스 새 시리즈 '약한영웅 클래스2' 공개를 기념해 28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박지훈은 극 중 배역인 연시은처럼, 모범생 같은 태도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자들의 질문 내용을 요약해서 종이에 받아적었고, 곰곰이 생각한 뒤에야 조곤조곤한 말투로 답변했다.

박지훈은 "웬지 모르게 연시은은 유난히 더 애착이 가고, 친근하고, 안쓰럽게 바라보게 되는 캐릭터였다"며 "시은이의 얘기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클래스2를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시은이가 결국 친한 친구들과 함께 웃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뻐했다"고 말했다.

'약한영웅'은 학생들이 마주한 폭력을 전면에 내세운 학원물이다.

시즌1은 공부밖에 모르는 모범

생 연시은이 주변의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는 과정을, 시즌2는 친구들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를 안고 새로운 고등학교로 전학 간 이후의 이야기를 그렸다.

박지훈은 "시즌2에서 더 집중적으로 표현해내고 싶었던 것은 악에 받친 느낌이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폭력으로 친구를 잃은 뒤 시은이에게는 새롭게 쌓인 감정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시즌2에서 액션의 규모가 훨씬 커졌는데, 싸우는 장면에서 '제발 이겨주어 줘 그만하자'는 감정을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시은이는 자기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싸우는 인물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싸우는 친구거든요. 액션의 쾌감이 덜 해서 아쉽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시은이와 친구들의 서사에 초점을 맞춘다면 시은이가 왜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말수도 적고,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는 연시은은 표현의 폭이 제한돼 있지만, 박지훈은 무표정 속 슬픔, 분노, 외로움, 좌절 등 복합적인 감정을 소화해내며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특유의 공허한 눈빛 연기와 미세한 얼굴 근육 떨림을 활용한 감정 연기가 호평받았다.

박지훈은 "화가 나서 몸의 피가

차가워지는 느낌을 연시은을 연기하면서 처음 느껴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볼이 떨리는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 보면서, 저도 제가 정말 깊게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저도 놀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시은이에겐 신기하게 바로바로 몰입됐던 것 같아요. '클래스2' 첫 리딩을 할 때도 감독님이 '어떻게 저렇게 바로 시은이가 나오지?'라고 하셨는데, 현장에서도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공 차고, 웃고, 장난치다가 숯만 들어가면 바로 몰입이 됐거든요. 감독님도 신기하셨대요."

박지훈은 연시은에 쉽게 몰입이 된 이유는 과거 자기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역 배우로 생활하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뿐이었고, 또래 친구가 많이 없었다"며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시은이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다. 어릴 때 제가 느낀 감정을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은이의 쓸쓸한 뒷모습을 표현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은이를 연기하며 위로받는 순간도 많았어요.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웃을라 말라 하게 웃는 장면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웃어야 하나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시은이가 웃었네' 싶은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죠."

아역배우 출신인 박지훈은 여러 드라마에서 단역으로 출연했고, 뮤지컬 무대에 서기도 했다.

그가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건 엠넷 예능 '프로듀스 101'에서였다. '내 마음속에 저장'이란 유행어로 단숨에 인지도를 쌓았고,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해 귀여운 이미지로 큰 인기를 얻었다.

'약한영웅' 시리즈로 기존의 꽃미남 아이돌 이미지를 깨고 배우로서 한 단계 도약한 박지훈은 "아

직 배우로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작품에서 제가 가진 모습을 표현해내고 싶은 갈망이 남아있다"며 "그래야 저도 저를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큰 목표를 세워두지는 않았어요. 인생은 끝이 없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계속 묵묵히 뛰어가다가, 때로는 걸어가자는 마음이에요."

coup@yna.co.kr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2025년도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2025 NE DRAWING CONTEST

<https://forms.gle/qVAeXcwhYoRIe6Y88>

- * 일시 및 장소: 2025년 5월 24일(토) 오후 2시부터 오크힐 파크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 * 오후 2시 (접수) ~ 5시 30분 (시상식 포함)
- * 신청 및 마감: **5월 18일 마감**
- * 참가비/기인: \$10(회원 한국학교 학생)
- * 참가비 보내실 주소:
참가비는 각 학교 대표자가 참가비 총액을 아래의 주소로 보냅니다.
(수표는 NAKS-NE Chapter로 작성)

Sang Kang
P.O. Box 337
Billerica, MA 01821



- <1> 참가자격: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재학생 (Pre-Kinder~11학년)
- <2> 참가부문: 크레용, 색연필, 그림물감 등
(유화 제외/콜라주 제외(풀, 가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입체 작품제출 불가))
- <3> 시상 및 심사위원: Pre Kinder부터 11학년까지의 학년 별 시상
 - 1) Pre-Kinder는 참가자 전원 시상
 - 2) K-11학년: 각 그룹 별로 대상, 금, 은, 동, 입선상
 - 3) 감독/심사 위원: 미술 전공한 분으로 회원교에서 추천한 교사
 - 4) 그림 주제는 당일 선택하여 알림
- <4> 준비물 및 협조 부탁 (물감, 크레용 사용이 가능한 종이는 협의회에서 준비)
 - 1) 물감, 크레용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모든 재료를 준비 합니다.
 - 2) 야외 바닥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니 의자나 앉을 돛자리가 필요합니다
 - 3) 딱딱한 보드나 이젤 등 종이를 놓고 그릴 수 있는 도구
- <5> 각 학생/가족 별로 준비할 사항
 - 1) 필요에 따른 기본 First Aid, 아이들 편크림, 모자, 모기약 등
 - 2) 공원에서 음식을 해 먹는 그릴 또는 불 사용 금지, 음식을 해 먹을 수 없습니다.
 - 3) 간식은 필요한 경우 가족 별로 준비하시고 프레기는 행사 후 참가자들이 직접 수거하도록 합니다.
- <6> 행사 당일 또는 전날 비가 많이 오거나, 더위가 심한 경우 학교 내부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순서

- 2:00-2:30 접수
- 2:30-3:00 개회식 및 주제 선정
- 3:00-3:10 대회장소 이동
- 3:10-4:10 대회
- 4:10-4:40 심사
- 4:40-5:30 시상식 및 폐회



주최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후원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교장단 및 이사회 **보스톤코리아**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17) 주식 고수가 꼽은 투자 종목

한국 한 경제 신문사에서 재테크 고수가 출동하는 투자 박람회 5월 초에 연다. ‘눈치 빠른 큰손들이 이미 미국에서 유턴... 주식고수 5인’은 ‘지금 한국주식사라’고 추천한다.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계 금융 투자 환경에서 재테크 비법도 알려준다고 한다.

신문에서 언급하는 주식 고수가 꼽은 ‘올해 뜰 종목은?’ 같은 조언 대부분은 현 시점에 의한 투자 포트폴리오이다. 그러나 제대로 하는 투자는 현시점이나 단기간을 대비한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야 한다. 투자자가 아이들 학자금을 위한 투자인지, 몇십 년 후 은퇴자금인지,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인지, 등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는 조언에서도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세계 주식시장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단 1.3%에 불과하다. 미국 주식시장은 58.4% 규모이다. 규모가 2%도 되지 않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그야말로 ‘몰빵’하는 거와 비슷하며 그만큼 투자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투자의 기본인 분산투자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한국에 강의 초청으로 최근 방문했을 때 길거리에 ‘국민연금의 새로운 기록, 2년 연속 최고 수익률 달성, 적립금 1,200조 원 돌파’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보았다. 호기심에 국민연금의 과거 수익률을 찾아보니 2024년은 15.00% 그리고 2023년은 13.59%였다. 은행 이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익률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수익률은 2024는 24.9%, 그리고

2023년은 26.51%이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무려 10% 그리고 12.92% 차이가 난다.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운영한 자금이 아닌가?

국민연금은 미국의 소셜 연금과 같은 은퇴 후 수입이 없는 국민에게 절대 필요한 돈이다. 그런데 적립금 1,200조 원의 수익률 10% 차이만 무려 120조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이다.

*참고로 1조 원이란 1,000,000,000,000원이다.

미국 S&P 500 Index란 500대 기업으로 구성된 종목이다. 지난 10년(12월 2024)간의 연평균이 13.3%이다. 이것은 투자한 자금이 3배 이상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률이다. 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낸 투자 전문가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노후 준비로 주식 투자 절대 필요하지만

투자자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특히 주식 종목이나 언제 사고, 파는지를 말하는 조언 등은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지만,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제대로 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주식 비법이나 투자 전략을 알려주겠다는 사람도 많고 주식 대박 종목을 꼽아주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도 많이 있다. 금융업계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고 열심히 부추긴다. 주식 정보도 넘쳐난다. 그러나 주위에 떠도는 주식 정보와 균형 심리에 의한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 매우 높다는 사실을 투자자는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는 투자하기 더욱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제대로 하는 투자로 편안한 은퇴 생활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우리가 알고 있는 ADHD가 과연 옳은 이해인가

NYT, 진단은 역대 최고치.... 그러나 지금의 치료 방식에 회의 제기 ADHD, 뇌에 발생한 생물학적 질병이 아닌 환경불일치설 대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대한 진단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 아동의 11.4%가 A.D.H.D.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1990년대 중반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가 A.D.H.D.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를 치료하는 방식은 과학적 진실과 부합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을 뉴욕 타임스가 제기했다.

1990년대,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캠퍼스의 제임스 스완슨 박사는 이 분야의 권위자로, A.D.H.D. 치료 효과를 입증하고자 미국 국립정신보건연구소(NIMH)의 자금 지원을 받아 '다양한 치료방식 비교 연구(M.T.A.)'를 주도했다. 이 대규모 연구는 약물치료(리탈린, Ritalin)와 행동치료,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그리고 비교군을 포함해 장기간 추적한 대표적 임상실험이었다.

초기 결과는 자극제 약물이 확실한 효과를 보이는 듯했다. 치료 14개월 차까지는 리탈린을 복용한 아이들의 행동이 분명히 나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36개월이 지나자 그 효과는 사라졌고, 비교군을 포함한 모든 그룹의 증상 수준이 동일해졌다. 또 하나의 충격적 결과는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은 아

이들의 키 성장이 평균보다 1인치 이상 낮았다는 점이다. 스완슨은 "장기 효과는 없다. 유일한 장기 효과는 성장 억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A.D.H.D. 약물치료는 행동 개선에는 즉각적이지만, 학습 성취도 향상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도 잇따랐다. 예컨대 2022년 플로리다의 여름캠프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리탈린을 복용한 아동들이 학습시간 동안 더 조용하고 문제를 더 많이 풀었지만, 실제 학습 성과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마치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학자들의 의문 제기와 무관하게, A.D.H.D. 진단의 확산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아동의 11.4%가 A.D.H.D.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로, 미국 청소년의 15.5%가 포함되며, 특히 14세 남아의 21%, 17세 남아의 23%가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체적으로 A.D.H.D. 진단을 받은 미국 아동은 약 700만 명으로, 2016년의 600만 명, 1990년대 중반의 200만 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선호되는 치료법은 여전히 리탈린(Ri-

talin)이나 애더럴(Adderall)과 같은 자극제 약물이며, 이 약물 시장도 진단 증가세와 함께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A.D.H.D. 치료를 위한 자극제 약물의 처방 건수는 미국 내에서 58% 증가했다. 특히 10세에서 14세 사이의 남아들에게서 처방률이 가장 높지만, 현재 자극제 시장의 주요 성장세는 성인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2012년에는 30대 미국인에게 약 500만 건의 처방이 내려졌지만, 10년 후인 2022년에는 그 수치가 1,800만 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A.D.H.D.가 '뇌의 당뇨병'이라 불릴 정도로 생물학적 질환으로 설명되는 경향도 있으나, 최근 과학자들은 이 진단의 생물학적 기반에 점점 회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찾던 뇌의 구조 차이, 유전자 마커는 생각보다 미미하거나 반복 실험에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MIT 뇌과학자 존 가브리엘리는 "15년 전에는 낙관적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에드먼드 소누가-바르케, 뉴욕대학교의 F. 자비에 카스텔라노스 등은 A.D.H.D.의 진단 기준과 치료방식이 과학적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A.D.H.D.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최근 연구 결과다. M.T.A. 연구의 후속 논문에 따르면, 초기 진단을 받은 아동들 중 지속적으로 같은 증상을 보인 이는 11%에 불과

〈전체 기사 읽기〉

했다. 대다수는 증상이 오르락내리락했고, 한때 A.D.H.D. 증상이 없었던 비교군 아동 중 40%가 청소년기에 진단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다. 즉, A.D.H.D.는 일종의 '상태'일 수 있다는 관점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신경과학자 에드먼드 소누가-바르케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그는 A.D.H.D.를 생물학적 결함이 아닌, 아동의 기질과 환경이 맞지 않아 생기는 불일치(mismatch)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물학적 뇌의 결핍, 즉 질병을 고치는 대신, 아이들이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약 없이도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및 직업 환경을 찾았을 때 증상이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M.T.A. 연구자들은 "이들은 A.D.H.D.를 고정된 질환이 아니라, 자신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특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물론 이 새로운 관점은 불편할 수 있다. 명확한 진단이 주는 안도감을 줄 수도 있고, 교육이나 사회 시스템이 획일화되어 있기에 아이 개개인의 환경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모델은 아이들에게 "너의 뇌에 결함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신,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너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내년쯤 환경이 바뀐다면, 그 증상 역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와 가족은 약물치료가 이익이 단점을 상회하는 타당한 선택인지 보다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학교나 가정 등 그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만약 그가 수학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 외에도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다른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문제들을 따로 다루는 접근도 가능해진다.

물론 이 같은 A.D.H.D. 모델에는 단점도 있다. 오랜 시간의 좌절과 불확실성 끝에 '우리 아이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기대하던 부모에게는 이 모델이 오히려 실망스러울 수 있다. 또한 환자와 가족, 의사 모두에게 더 많은 유연성과 실험적인 접근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모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다. 첫째, 그것은 A.D.H.D.에 대한 최신 과학적 이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점. 둘째, 아이들에게 미래에 실제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 단지 뇌를 화학적으로 '고쳐서' 세상에 더 잘 적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의 복잡하고 독특한 뇌에 맞춰 세상이 조금 더 잘 맞춰질 수 있다는 관점을 열어준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매사추세츠의 집값이 떨어질까?

요즘 내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다. 경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현재 과연 부동산 시세는 어떻게 될까? 그럼 전문가들이 예상한 2025년에 가장 집값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도시가 어디인지를 먼저 살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0군데를 알아 보겠다.
10. San Antonio, Texas

9. Killeen, Texas
8. Palm Bay, Florida
7. North Port, Florida
6. Austin, Texas
5. Lakeland, Florida
4. Colorado Springs, Colorado
3. Denver, Colorado
2. Boise, Idaho
1. Cape Coral, Florida

탐 10군데를 보면 4군데가 플로리다(Florida)이고 제일 많이 떨어진 곳도 플로리다(Florida) 주의 도시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플로리다가 소득세(Income Tax)를 부과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때 많이 이사를 했다. 그러나 허리케인 등 많은 이유로 올라간 보험비가 많은 집주인들이 플로리다를 떠나는 큰 이유가 되었다.

아직까지는 경기가 나쁘다고 해도 우리 동네에 부동산마켓에는 강 건너 불 보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매물이 그리 많지 않아서 바이어가 아직까지는 많은 현실에서 집값이 떨어질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계속 집값 떨어질 도시를 업데이트해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로 느껴진다.



텍사스(Texas)도 3군데나 된다. 마찬가지로 Texas도 소득세(Income Tax)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때 이사 간 도시중에 하나다. 거기다 집값이 싸서 캘리포니아(California)에서 텍사스로 인구가 많이 이동했다는 이야기도 많다. 아직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은 텍사스주는 언젠가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건 우리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그냥 탐 10 군데만 봐도 우리와 같이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 떨어진 곳은 우리와는 너무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도 집 하나만 나와도 10개정도에 오피스가 들어오는 건 지난 팬데믹 이후와 다름이 없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5월 11일 - 5월 17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행복하고 편안한</p> <p>● 운수: 주위의 변화에 잘 대응해야 대길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지지를 얻을 기회가 오니 신용회복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성실하게 일하면 뜻밖의 행운을 잡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도움으로 재기할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 애정: 행복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외로웠던 사람은 의지할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1, 15일 길일. 13, 16일 주의.</p>	<p>소띠 미리 대처하는</p> <p>● 운수: 계획했던 일이 다소 늦어질 것이니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 금전: 매매하는 일로 고심하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애정: 유혹에 빠져들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12, 16일 길일. 14, 17일 주의.</p>	<p>범띠 서로 간의 애정이 더 깊어지는</p> <p>● 운수: 오랫동안 뜻대로 되지 않던 일이 해결되고 여러 면에서 나아집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 금전: 금전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쉽게 풀려 나아갈 것입니다. 뜻밖의 소득으로 웃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희소식이 들려오고 서로 간의 애정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권태기의 부부나 연인에게도 희망이 보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3, 17일 길일. 12, 15일 주의.</p>
<p>토끼띠 차분한 마음으로</p> <p>● 운수: 주의가 산만하고 초조해지기 쉽군요. 이 일을 하면서 저 생각 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차분한 마음으로 적당한 긴장한 상태에서 일해야 하겠습니다. 계산상의 착오로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애정: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연연한 현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4, 17일 길일. 13, 16일 주의.</p>	<p>용띠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p> <p>● 운수: 해외로 나가거나 장거리 여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나 변동, 확정하기에도 적합한 때가 아닙니다. ● 금전: 힘들다고 해서 지금 현실과 타협하는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훗날 찾아오는 복을 차버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의 외로움이 자신에게 전달되어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5, 16일 길일. 14, 17일 주의.</p>	<p>뱀띠 한 걸음 물러서서</p> <p>● 운수: 외면보다는 내면에 충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앞서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지출할 일이 생깁니다. 특히 순간적인 결정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애정: 성격 차이가 있어서 힘든 상태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함께 가야 할 수많은 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3, 16일 길일. 15, 17일 주의.</p>
<p>말띠 가슴을 활짝 열고</p> <p>● 운수: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과 현실이 따라주지 못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 금전: 가슴을 활짝 열고 먼저 베푸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좁은 소견으로 결정하면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 애정: 사랑의 감정에 빠져있어도 결혼을 결심하기에는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고민이 있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2, 17일 길일. 13, 16일 주의.</p>	<p>양띠 적당한 선에서</p> <p>● 운수: 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 통하지 않고 막히는 일이 있을 때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 금전: 수입이 떨어지는 주입니다. 너무 매상을 올리려고 무리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애정: 잘 피해야 할 것입니다. 주위의 눈을 피해서 만나야 하는 사랑이 점점 깊은 관계에 빠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2, 13일 길일. 14, 17일 주의.</p>	<p>원숭이띠 해결의 실마리를</p> <p>● 운수: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하고 행동해도 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생각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소유의 만족보다 베푸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인간관계의 화합에 신경 쓰도록 하세요. ● 애정: 약혼이나 결혼하기에 최적기입니다. 우연히 방문한 곳에서 멋진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1, 17일 길일. 12, 14일 주의.</p>
<p>닭띠 현실에 만족하고</p> <p>● 운수: 현실에 만족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동요만 없다면 무난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 금전: 모든 일을 순서에 따라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자기 뜻을 분명히 밝혀야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 애정: 처한 현실이 힘들수록 부부나 이성 간에 이해심으로 상대를 받아주어야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1, 12일 길일. 13, 16일 주의.</p>	<p>개띠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p> <p>● 운수: 사업상으로 그동안 하던 일을 바꾸거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전업을 계획하는 시기로 적합합니다. ● 금전: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니 지금 오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외부로 활동해야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시부모나 가족과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독신자는 분홍빛 사랑을 맛보게 되는 주가 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3, 15일 길일. 11, 14일 주의.</p>	<p>돼지띠 조금씩 이루어지는</p> <p>● 운수: 조금씩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 금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안정되는 시기이니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 애정: 일시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긴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을 나누게 되니 더 가까워집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4, 17일 길일. 12, 15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매사추세츠주 웰즐리 (Wellesley, Ma) 에서 매주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매에 걸린 연로하신 아버지를 도와주실 유경험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joint@sent.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 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sh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스케일 키운 '데블스 플랜'...이세돌 "바둑보다 어려웠어요"

(서울=연합뉴스) 오명연 기자 = 바둑의 전설 이세돌, JTBC 아나운서 출신 강지영, 그룹 슈퍼주니어의 규현 등 각 분야 '브레인'들이 한데 모였다. 넷플릭스 새 두뇌 서바이벌 시리즈 '데블스 플랜: 데스룸'을 통해서다.

프로그램 기획과 연출을 맡은 정종연 PD는 29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데블스 플랜: 데스룸' 제작발표회에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도 이전 시즌과 충분히 다르고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며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데블스 플랜'의 시간 속에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데블스 플랜: 데스룸'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직업군의 14명이 모여 7일 동안 합숙하며 치열한 게임 대결을 펼치는 과정을 그린 예능 시리즈다.

2023년 공개된 시즌1은 공동체 속 다양한 인간 군상과 관계 변화를 담아내며 마치 사회적 실험을 보는 듯한 재미를 줬다. 총 23개국에서 톱10 순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시즌2는 참가자 수를 12명에서 14명으로 늘렸고, 1천평 규모의 세트장을 세워 스케일을 키웠다.

정 PD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생활동과 감옥동이 분리돼 있고, 감옥동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감옥 매치를 치르게 되는 점"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단순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프로그램 전체의 색깔이 확 달라지는 효과를 기대했고, 기대대로 된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데블스 플랜: 데스룸' 출연 소식이 전



해진 후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은 전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은 "이런 관심에 대한 부담은 느끼지 않는다"며 "좋은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서 출연한 것이고, 실제로 좋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둑 외적으로 승부욕을 느껴 본게 처음이었던 것 같다"며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나다 보니 내가 이길 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되짚었다.

바둑과 '데블스 플랜' 게임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웠느냐는 질문에는 망설임 없이 "'데블스 플랜'이 확실히 어렵더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 프로그램에는 연애 예능 '환승연애'로 얼굴을 알린 서울대 출신 인플루언서 정현규, 가수 쉐,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등에서 활약한 할리우드 배우 저스틴 H.민도 출연한다.

쉐는 "평소 이미지와 비슷하게 웃음이 많은 캐릭터로 게임에 임할 생각이 없었다"며 "시즌을 보면서 저도 야망이 생겼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해외 투어를 할 때 밤새 문제 풀이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번 치열하게, 웃음기 하나 없이 경쟁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가했습니다."(쉐)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애니 '킹 오브 킹스', '기생충' 꺾고 美서 역대 최고 흥행 韓영화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최근 할리우드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제작사의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꺾고 미국에서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에 등극했다.

28일 제작사 모팩스튜디오에 따르면 '킹 오브 킹스'는 전날 누적 수익 5천451만 달러(약 787억원)를 달성해 '기생충'의 최종 매출액인 5천384만 달러(777억원)를 넘겼다.

이로써 '킹 오브 킹스'는 미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 가장 흥행한 작품이 됐다.

장성호 모팩스튜디오 대표가 각본을

쓰고 연출한 이 작품은 찰스 디킨스의 '우리 주님의 생애'(The Life of Our Lord)를 바탕으로 예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여정을 그린다. 케네스 브래나, 우마 서먼, 벤 킹즐리, 피어스 브로스넌, 포리스트 휘터커 등 쟁쟁한 배우진이 목소리를 연기했다.

이 영화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미 개봉 직후 잭 블랙·제이슨 모모아 주연의 '마인크래프트 무비'에 이어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른 이후 꾸준히 관객몰이를 이어갔다. 실제 관람객의 평점을 토대로 산정하는 시네마스코어에서 A+를 받는 등 호평도 끌어냈다.

rambo@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찬양사역자 '이광선 전도사'를 만나며...

귀한 사람이 있다. 만나면 겸손함에 절로 나도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사람 말이다. 세상 사람도 그럴진대 '하나님의 사람' 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축복이지 않은가. 뉴욕의 교회 행사 때에 가끔씩 눈인사만 전하고 지났던 이광선 사역자와의 인연이 된 것은 2024년 1월 <월드두나미스 선교합창단 / 단장 김희복 목사> 창단식과 함께 나는 이사장 취임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광선 찬양사역자는 지휘를 맡게 되었다. 이렇게 인연이 되었다. 지난 시간들을 하나 하나 생각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런 후 이광선 찬양사역자는 '두나미스 신학대학교' M.Div 과정을 공부하게 된 것이다. 미국에 어릴 적 이민을 온 영어권에 속한 사역자가 나의 후배가 된다는 것은 내게도 큰 기쁨이 되었다. 인연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나는 그런 인연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이라고 생각한다. 그 선물을 귀하게 간직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의 시작인 것이다. 선, 후배라는 것이 말하지 않아도 늘 든든한 마음 안에 있음을 안다. 사모님을 만나며 더욱 귀한 사역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남편 곁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로 동역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지난 2025년 4월 29일(화) 제46차 <한미두나미스예수교장로회 뉴욕.뉴저지노회(노회장 김희복 목사/서기 유윤섭 목사)>가 있었다. 전도사 고시를 마친 이광선 찬양사역자가 이날 '전도사 임명장 수여식' 도 함께 하게 되었다. 많은 노회원들(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이 큰 박수로 축하를 해주었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기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확장' 에 쓰임받는 기도하는 신실한 사역자(전도사)가 되었다는 것이 마음 든든하고 넉넉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다. 맘껏 마음의 축하를 큰 박수로 전해주었다.

그렇다, 우리가 꼭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용사가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 군대의 군사가 된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 아닌가. 그것은 분명 직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을 때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며 피할 수 없기에 순종하

며 따르는 일이다. 이광선 찬양사역자의 찬양집회나 치유와 회복 기도회에 참석해보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에 나 역시도 참여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응원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12)

세상은 칠혹같이 어둡고 캄캄하고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요즘을 산다. 혼돈의 시대이다. 그 사방 어느 곳을 둘러봐도 안정되지 않고 혼란스럽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둡기운데 휩쓸려 바다의 파도에 나를 놓칠 수밖에 없다. 정신 줄을 바짝 동여매야 한다.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밖에 없다.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사명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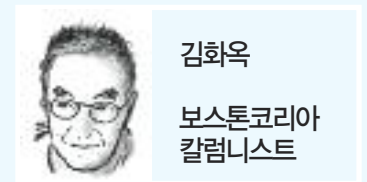
야 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요즘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것은 거룩한 부담감일지도 모른다. 생각 하나 잘못하면 결과는 말과 행동의 실수로 남고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다. 우리네 삶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회복의 말, 치유의 말이 필요한 때이다. 특별히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생각의 결과는 언어와 행동이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한 까닭이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의 밑그림을 볼 수 있는 이유이다. 이처럼 곁에 마음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또한 진심어린 긍정적인 소망의 말과 희망의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나를 넉넉한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넉넉히 받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삶이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겠는가. 바로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찬양사역자 이광선 전도사이다.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하나님 나라 확장' 의 일꾼으로서의 만남이고 나눔인 것이다. 할렐루야!!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숨어있는 향기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꽃을 구별하지 못한다. 어릴적엔 선생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들었어도 곧 잊었다. 그 꽃이 이젠 가져간 거다. 구별할 수 없었던 거다. 관심도 없었고, 그게 그닥 중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선친께 물을적도 있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간명했다. 너는 몰라도 된다. 당신도 알 수 없으셨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목련이 피기를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활짝 피었다. 4월 중순이었는데, 우리동네 어느 집 앞마당에서 발견했다. 우리집 강아지 송이를 산책시킴직에 눈에 띄었던 거다. 다른 꽃들도 필동말동 하더니, 더불어 팡 터졌다.

몇주전 한국신문에 나온 기사이다. 꽃소식인데, 선암사 매화와 벚꽃을 말했고, 목련의 소식이었다. 기사 몇줄을 낱것으로 옮겨 놓는다. '매화는 봄을 연다. 벚꽃은 봄을 단는다. 매화 · 목련 · 개나리 · 진달래 · 벚꽃 순. 대체로 이러한데, 도대체 올해는 좀 엇나가는 분위기.' '봄보다' 마음이 앞서 매화를 찾았던 사람들은 탄식했다. "아쉽다."

꽃은 가까이에서 꽃향내와 함께 보는 것도 좋다. 그러나 멀찍이 바라다 보며 즐기는 것도 만만치는 않다. 그렇다고 내가 꽃에 대해 매니아나 덕후에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아마추어 수준에서 근처

를 어슬렁거린다. 그러나 아마추어라고 해서 꽃을 기다리고 즐기는데 자취가 없다는 건 아닐 터.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집 마당에도 드디어 피어 올라섰다. 개나리를 필두로 철쭉도 한번에 팡 터져 나왔던 거다. 덩치 큰 나무에 달린 벚꽃도 활짝 만개했더랬다. 어둡고 칙칙하던 집 마당이 환하게 밝아 졌던 거다. (부끄러운데, 실은 그나무가 매화나무인지 벚꽃(이화梨花)나무인지 확인 할수는 없다.) 이른 새벽에 올려다보는 흰꽃들이들은 더욱 그윽하더랬다.

매화라면 암향(暗香)이라 한다. 암향이란 날말은 뜻도 어렵지만 말처럼 숨어있는 향기란다. 그윽한 향기라 할 수도 있겠고 시

인 정철의 사미인곡에도 나온다고 했다.

동풍이 문득 불어 쌓은 눈을 헤쳐 내니창 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가득이 나 싹싹하고 적막한데

그윽한 향기(암향暗香)는 무슨 일이고

봄은 짧고, 해가 길어 지는 계절이다. 보스톤의 봄은 느지막히 왔다가 일찍 간다. 은 봄이 못내 아쉽다. 떨어져 바람에 흩어지던 벚꽃은 심란케 하는 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아가 2:12)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오전 4시간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69만원 ~**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120만원 ~**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40만원 ~**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2일간 진행(오전 검사 시행) **437만원 ~**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 | |
|--------------|-------------|
|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 세란병원(독립문역) |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봄철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주의해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봄이 되면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등으로 증가하는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호흡기내과 조 은영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봄철 기침, 코감기는 질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요즘 특히 주의해야 한다. 봄날 보이지 않는 불청객 미세먼지는 기관지염, 천식, 안과 질환은 물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심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호흡기계는 만성 폐쇄성폐질환, 천식 등을 유발 혹은 악화시킬 수 있어 해당 환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교차가 심하고 미세먼지에 영향을 많이 받

는 환절기 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다양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기침, 가래, 코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유해 입자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인간 기대수명을 18년이나 단축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호흡기를 통해 폐 속 깊이 침투하거나 혈관에 스며들어 체내로 흡수되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 것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이다. 기침, 가래에서 증상이 시작되나 심하면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 발병 요인은 흡연이지만 미세먼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체외 배출이 힘들어 재채기와 기침 등이 심해

질 수 있고 폐, 기관지에 유입되면 해당 유해 인인이 염증을 유발, 호흡기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날에는 만성질환자와 영유아 및 고령 환자는 벗었던 마스크를 당분간 다시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줘야 한다.

또한 호흡기계 환자와 유해환경에 접하는 사람들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봄철 나들이를 즐기기 전 먼저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대기오염 관련 앱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다. 이밖에 손 씻기 위생을 강화하고 가습기 사용 등으로 실내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물을 많이 먹으면 호흡기 점막 건조 현상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성분의 침투를 막을 수 있어서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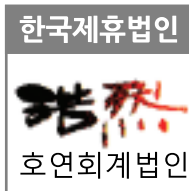
. 과일과 채소 섭취로 비타민 등을 보충해 면역력을 관리해주는 것도 좋다.

“봄철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주의해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a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ee@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치과** 서비스 **휴람** 을 이용해보세요!



나이를면서 잇몸질환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치과의 퀄리티는 당연히 한국 치과입니다.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치료기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치과치료...
지금 상담을 통해 치료견적 확인 후 한국에서의 치과치료 준비해보세요!!!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치과 이벤트

- 1 임플란트 오스템 [99만원~]
- 2 임플란트 외산 [165만원~]
- 3 스케일링+구강검진+치아X-RAY [5만원~]
- 4 라미네이트 [40만원~]
- 5 미백 [30만원~]
- 6 전체틀니 [180만원~]
- 7 크라운 [40만원~]
- 8 충치치료 [국내수가]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치아 X-RAY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치과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미소랑치과(양재역, 발산역, 서울대역, 셋강역)
옥스치과(강남역)
스카이뷰치과(신논현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드림하우스"보다 투자용 부동산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이유

Article (4-1) – FTHB – Buying future investment instead of forever home, become a landlord from the start

Michael Lee

Mobile (978) 314-8818

Email mike.lee@gmccloan.com

많은 첫 주택 구매자에게 내 집 마련은 오랜 꿈의 실현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재산을 불릴 수 있는 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향후 투자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forever home' 을 먼저 꿈꾸지만, 미래에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을 선택하면 특히 향후 임대를 꿈꾸는 분들에게 큰 재정적인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으로 자산을 늘리는 방법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룸메이트를 들이거나, 2~4유닛짜리 다가구 주택을 구입해 일부를 임대하거나, 단기 임대(Airbnb 등)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적으로 자신의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임대 수익으로 주택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더 빠르게 다음 집 마련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여러 부동산을 보유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안정적인 passive 인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주거용 모기지로 낮은 다운페이먼트 활용 가능
첫 주택 구매자의 경우, 주거용 모기지를 활용하면 3% 또는 경우에 따라 0% 다운페이먼트로도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용 부동산을 처음부터 구입

하면 다운페이먼트는 최소 15~20%로 뛰고, 이자율도 더 높아집니다. 주거용으로 먼저 구입한 뒤 나중에 투자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세금 공제 혜택
집의 일부라도 임대를 한다면 세금 신고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기지 이자
 - 재산세
 - 수리 및 유지비
 - 보험료
 - 감가상각
- 이러한 공제는 과세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없거나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rbnb와 같은 단기 임대인 경우, 1099 인컴으로 보고되어 passive income이 아닌 active income으로 간주될 수 있어, 근로소득과 관련된 세금 공제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거용 주택 구매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최소화
현재 거주하는 집을 매도하고 다음 집을 구입하려는 경우, 타이밍 조절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먼저 팔고 나면 임시거



주지와 집 보관 문제가 발생하고, 먼저 구입하면 두 집의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동시에 매도와 매입을 진행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투자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 집을 구입한 후 30일 이내에 임차인을 들이면 됩니다. 이 경우, 모기지 프로그램에 따라 예상 임대 수익의 75% 또는 100%를 차후 주택 구매 시 소득으로 인정받아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낮은 다운페이먼트와 낮은 이율로 새 집을 구입하면서 동시에 임대수익도 챙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심하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부터 자산 증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임대인' 혹은 '투자자'의 마인드를 갖는 것은 게임의 판을 바꾸는 전략입니다. 미래의 임차인이 선호할 만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현재 본인이 원하는 집과는 다를 수 있지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양보도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 하지만, 그로 인해 더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구입하는 집이 거주 공간이자 미래의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 세금 혜택, 리스크 분산이라는 세 가지 이점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전략인 셈입니다. 낮은 다운페이먼트와 유연한 대출조건을 활용해 지금부터 여러분만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시작해보세요.



선거정보를 확인
ok.noc.gov.kr

세계 속 한국인의 소중한 마음. 투표로 보여주세요

Represent the True Hearts of Koreans around the World through Your Vot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Election for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국외재외자 신고기간 Period of reporting on overseas voters
2025. 4. 4. ~ 2025. 4. 24.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Period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n overseas voter.
~ 2025. 4. 24.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5. 5. 20. ~ 2025. 5. 25.

매일 08:00~17:00 08:00 ~ 17:00 every day
* 7시간 중 금요일은 시간을 달리 적용 4 적용
* The voting period may differ by diplomatic mission.

투표장소 Voting Place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The place designated by the Overseas Election Commission

투표대상 Eligible Voters
· 국외재외자 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 Korean nationals enrolled in official lists of overseas domestic voters or overseas eligible voters

준비물 Required Documents
· 신분증명서(본인, 재외선거인명부 기재 확인서) 원본 및 사본
· An identification card(photocopy of the original) and a copy of the documents required to identify the nationality
· 국외재외자 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기재 확인서 사본
· A photocopy of the registration card or the registration card of the overseas voter
· Documents to identify the voter (as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overseas election commission)

*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 for the Overseas Election of the Second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oc.gov.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ebsite: www.mof.go.kr, and Overseas Election Agency: www.oea.go.kr



THE WORLD'S
No.1
GENSENG BRAND
JUNG KWAN JANG

JUNG KWAN JANG
MA 주 정관장 공식 브랜드 스토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세요**

가정의 달 특별 프로모션

Promo Period: April 18 - May 11, 2025



EVENT
1

홍삼정 240g

- 1개 구매시 에브리타임 자몽 10포
- 2개 구매시 홍삼정 50g
- 3개 구매시 홍삼정 120g 증정



EVENT
2

에브리타임 & 에브리타임 리미티드

- 30포 구매시 석류홍삼 10포 증정



EVENT
3

\$300 이상 구매시

- 석류홍삼 30포 증정



This offer is only valid for Jungkwanjang members. Therefore, supplies are available in limited quantities and may be terminated early or changed when the product supply is exhausted. Korean red ginseng may help boost one's immunity by increasing immune cells or regulating their functions. Genuine Jungkwanjang products are sold only at Jungkwanjang affiliated stores and designated sales outlets in the Americas. For more information on products, please visit www.jungkwanjang.com or contact us at contact@kgcus.com

증정품 매진 시, 기타 상응 제품으로 대체



Burlington점 Customer Service Desk 건너편 위치
\$150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Tel) 781-238-0303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